

날짜: 5786 년, 12 월 7 일 (2026 년 2 월 24 일)

토라 문: Tetzaveh (명하라)

주제: 의도와 결과

출애굽기 28:1 은 “너는 네 형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게로 가까이 데려오라. 아하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타말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미드라쉬는 “네게로 가까이 데려오라”라는 이 특이한 표현에 주목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가? 왜 모세께서 직접 아하론을 가까이 데리고 와야 하는가?

성현들은 이 명령이 금송아지 사건의 그림자 속에서 주어졌다고 하시며 다음을 기록하시며 가르칩니다: 모세께서 시나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아하론이 망치로 그 우상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사실 아하론의 의도는 모세께서 돌아올 때까지 백성을 지연시키려는 것이었고, 에레브 라브가 주동한 흥분된 회동 가운데 더 큰 유혈 사태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아하론을 백성과 함께한 공모자로 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그 상처는 단순히 이념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상의 문제였다.

그러자 거룩하신 분께서 개입하셨다. “모세, 나는 아하론의 마음을 아느니라.” 천상에서 부어 주시는 지식의 영은 사람이 했던 행위를 넘어서며, 그 행위까지 도달하게 된 심중의 동기를 꿰뚫어 봅니다. 육신의 눈은 외적인 행동만 보고 결론짓지만, 여호와 엘로힘은 각 네뱌쉬(행동을 책임지는 영혼)의 행동과 연결된 그의 의도를 관찰하십니다. 그러므로 토라는 “네게로 가까이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회복시켜라. 다시 가까이하라. 제사장 직분은 단순한 제도적 능률을 이루기 위한 임명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무너진 신뢰를 치유함으로 시작됩니다.

동시에 이 미드라쉬적 해석은 토라의 다른 구절과 팽팽한 긴장감을 이룹니다. 신명기 9:20 에서 모세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하론에게 심히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다.” 어떻게 아하론은 동시에 창조주의 긍휼하심 가운데 변호되면서도 동시에 거의 멸함을 받을 뻔 했을까요? 에이츠 요세프(Eitz Yosef)는 이 팽팽한 긴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하론에게 향한” 진노는 그의 의도 곧, 내적 동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도록 명을 받은 백성을 향한 진노가 아하론을 통로로 하여 표현된 것이다. 장차 창조주 여호와께 선택된 민족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될 아하론은 민족의 속죄를 담당할 특출하신 층에서 뿌리하신 네뱌쉬(영혼)였다. 백성의 죄의 무게가 그를 통해 지나가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공동체를 대신하여 심판을 흡수했던 것이다.

탈무드(Shabbos 33b)는 의인들이 그의 한 세대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다고 가르칩니다. 의인은 살아 있는 제단이 됩니다. 그의 개인적 시련이 공동체를 정화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따라서 아하론의 거의 멸망할 뻔한 사건은 파괴가 종국점이 아니라, 그 시련이 죄를 구속하도록 하는 승격된 역할로 이해됩니다.

셈 미슈무엘(Shem MiShmuel)은 하시딕의 스승 "말라흐"라 불린 랍비 아브라함의 설명을 인용합니다: 전도서 7:20 에 기록되기를, "항상 선을 행하고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심령의 영적 위상을 결정한다.

말라흐는 또한 두 종류의 의인을 설명합니다. 첫째 유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즉시 공적 사역에서 물러나 철저한 회개에 몰두합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내적 성찰과 정화를 통해 자신을 바로잡습니다. 회복이 완성되었다고 확신할 때야 다시 사역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회개는 거룩하고 의로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위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인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개를 위해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인적 영적 수보와 성장을 위해 천상에서 부으시는 매일의 사명을 중단하는 것은 면밀히 볼 때에 그 기저에는 자기 중심적 이해에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최우선 소망은 여호와 엘로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며, 자신을 더 정립시킬 수 있는 개인적 회개의 필요조차도, 최상의 부분-곧, 여호와 존전에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하며,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세속적인지를 가르치는 그 신성한 사명을 방해하도록 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여호와께 가까이 이끌며, 그 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회개는 후퇴하는 "철수"가 아니라, 어려움을 무릅쓰고 빛을 향하여 정진하는 "역동적인 사역"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셈 미슈무엘은 아하론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에 속했다고 설명은 다음으로 정리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는 백성을 보호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동기는 순수했고,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복과 생명되게 하신 가르침에 무지한 영들과 충돌했을 때에 흘러야 되는 재앙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외적 모습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보였기에 그러므로 천상에서는 아하론을 두 차원의 정점에서 동시에 판단하셨습니다.

행위의 물리적 세계 차원(마아세)에서는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속죄제(코르반 하타트)는 의도는 악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속죄하기 위해 드러냅니다. 아하론의 우상숭배의 다수 가운데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전략적이고 보호적인 의도였지만, 물리적으로는 송아지를 만드는 행위로 연결되며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외적 현실은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의 차원(마흐샤바)에서는 그는 넘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순수함 때문에,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만을 영원히 제사 직분을 맡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송아지를 만든 그 손이 장차 법궤 앞에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우상과 연루된 것으로 보였던 인물이 천상과 땅의 거룩의 중재자가 됩니다. 심판은 그의 소명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엑기스로 정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토라 내면에 담겨 있는 깊은 변증적인 사실들을 만납니다:

인간은 보이는 행동을 평가한다.

하늘은 숨겨진 의도를 저울에 잰다.

공동체의 속죄는 공동체를 맡기신 개인의 시련을 통과하며 이루어진다.

외적 행위의 실수는 내적 의도의 의로움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결과와 부르심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속죄제는 선택됨을 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킵니다.

무사르(윤리적 도)의 관점에서 아하론의 구절들은 그 행위의 완전 무결함으로 서가 아닌, 그 심장과 마음이 창조주의 빛과 정렬된 지도력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의인의 행동이 모호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각각의 행실의 의도를 아십니다. 그리고 면밀히 배려된 판단을 내리십니다. 여호와의 토라는 동시에 순수한 의도는 외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두차원의 생명의 나무에서 근거하는 판단과 상급은 "이격-동시적"으로 실제 합니다.

"네게로 가까이 데려오라"는 명령은 여러 층위로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형제 간의 화해이며,

공적 신뢰의 회복이며,

숨겨진 의로움에 대한 신성한 확증이며,

위기를 소명으로 바꾸는 변환입니다.

"금송아지의 재"라는 심판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제사장 의복이라는 상급이 나왔습니다.

아하론 대제사장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정련된 자로 섭니다. 그는 오류의 기억과 향의 향기를 동시에 지닌 채 빛의 증거로 세속력을 거스르며 겸비히 서 있는 존재입니다.

shalom.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전.2:9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엘로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엘로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6-8

“그리하여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레. 10:11-12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1-12